

코로나에 갈라진 유엔...트럼프 “中 책임” vs 시진핑 “연대 강화”

제75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 반토의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상 최초의 원격회의 방식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각국 유엔대표부 대사 1명씩만 총회장 좌석을 지켰고, 정상 들의 목소리는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로 대신 울려 퍼졌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사태 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놓고 갈라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 대유행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업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트럼프 “중국 바이러스”에 중대사 “정 치 바이러스 반대”=유엔본부 소재국 정상 으로서 두 번째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기술, 인권 등 여 러 전선에 걸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책임론’을 정면 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녹화한 7분여에 걸친 연설에서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 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중국 의 초기 대응을 맹비난했다.

그는 “유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중국 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계에 이 전염 병을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직설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시진

75차 총회 주요 정상들

첫날 코로나 대응놓고 시각차

중·러는 백신 공급 제한

마크롱 등 북 문제 일부 거론

핑 중국 국가주석은 특정국에 대한 책임론 보다는 글로벌 공동 전선을 강조하며 간접 반박했다.

시 주석 역시 사전 녹화 연설을 통해 “이 바이러스에 맞서 우리는 연대를 강화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정 치화’ 중단을 호소했다.

◇“미중 싸울 때 아냐”...말리려는 국제 사회=전대미문의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주요 2개국(G2) 갈등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일란토 의 시작을 알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개 최대 경제국이 자신만의 무역과 금융 규정, 인터넷과 인공지능(AI) 역량으로 지구촌을 갈라놓는 미래는 우리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중 ‘신냉 전’ 중단을 호소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팬 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도중에 벌 어지는 갈등의 유일한 승자는 바이러스 그

자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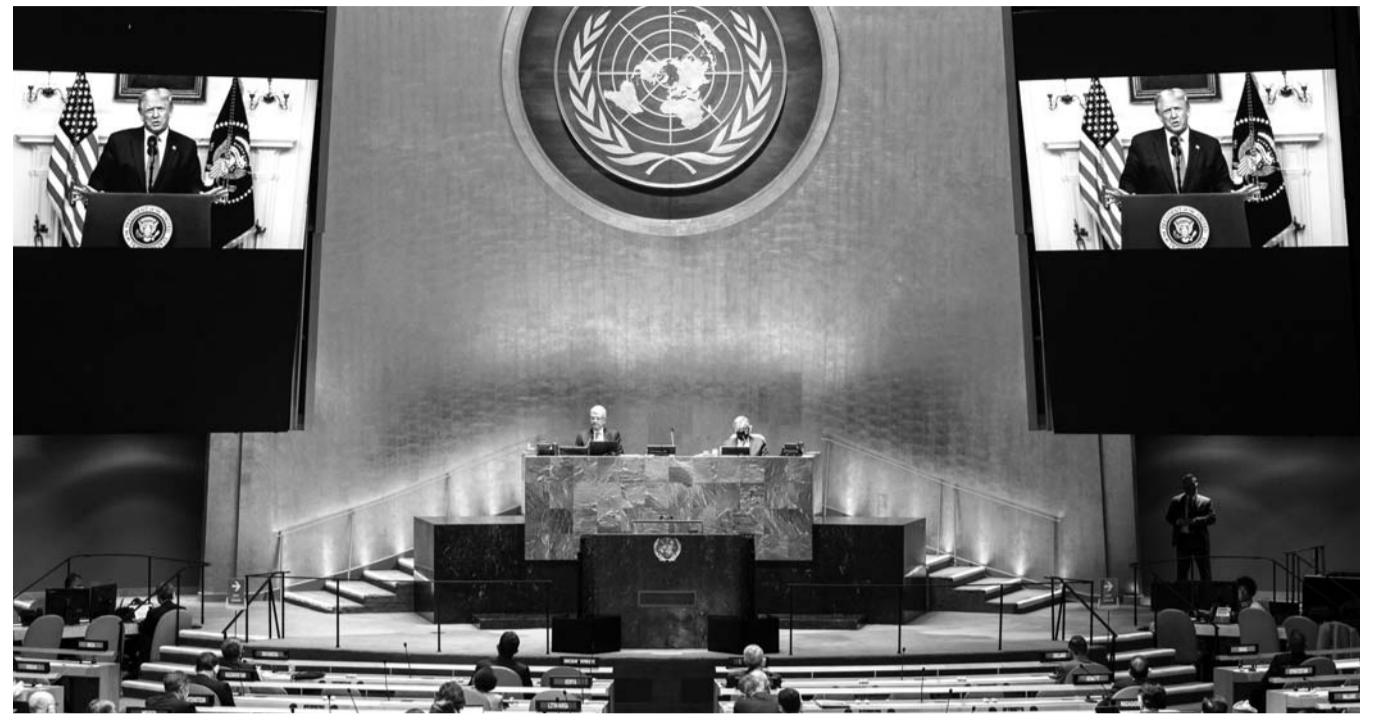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날 세계를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지배되도록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놔다.

◇“우리 백신 제공하겠다”...정상들의 코 로나 백신 홍보전=주요 제약사들을 중심 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레이스가 벌어지 는 가운데 자국 백신 제공 의사를 내놓은 정상들도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엔 직원들에게 모든 수준 높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며 “특히 자발적 집종을 원하는 유엔과 그 산하조직 직원들에게 러시아 백신을 무상 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를 위해 제 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패스’에도 북한 문제 일부 거론=매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 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건넌데 반해, 북한이 일란토의 주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켈리 크래 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의 연설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교 성과 중 한 사례로 북미관계 진전을 꼽았다.

크래프트 대사는 “대통령의 두려움을 모 르는 비전은 광활할 만한 발전을 보여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유엔 제공)

다”며 북미 첫 정상회담 개최, 북한 억류 미국민의 송환,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중단 등을 성과로 꼽은 뒤 외교 적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고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올 “지속적 합의를 위한 시작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착 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와 정치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려는 미

국의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우리는 여전 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약속 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이고 부당한 제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우방국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한 가족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제한조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기침, 다른 사람엔 죽음의 신호”

존슨 英총리 새 제한조치 발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 간)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들에게 “당신의 기침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슨 총리는 이날 저녁 TV를 통해 방송된 대 국민 연설에서 영국 국민에 코로나19 관련 새 제한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 성명을 통

해 펄과 식당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 확대, 결혼식 및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 등 의 새 조치를 발표했다.

존슨 총리는 “이 나라가 자유를 사랑한다 는 것을 안다”면서 “여전히 너무 많은 위반 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적(바이러스)이 감 지되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고 거리두기 등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40년째 복역 존 레넌 살해범 “난 사형됐어야 마땅했다”

11번째 가석방 불허

록그룹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을 살해하 고 40년째 복역 중인 마크 데이비드 채 프먼(65)이 “그 당시 사형 당했어야 마 당했다”고 말했다.

채프먼은 지난달 열린 미국 뉴욕주 교 정당국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레넌을 살해한 행위를 후회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 했다. 채프먼의 발언 내용이 담긴 가석 방심사위원회 기록은 전날 공개됐다.

채프먼은 “나는 레넌을 암살했다. 레 넌은 당시 매우 유명했고, 내가 개인적 영광을 좇은 것이(살해의) 유일한 이유 였다”며 “나는(레넌을 살해한 뒤)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 다. 레넌의 열성 팬이었던 채프먼은 1980년 12월 8일 레넌의 뉴욕 맨해튼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아파트를 나서는 레넌에게 레넌이 발매한 앨범 ‘더블 판 타지’를 건네 사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5시간 뒤 집으로 돌아오는 레넌을 향해 총을 쏘 살해했다. 채프먼은 “레넌은 사

실 그날 나에게 친절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오싹하며 비열했다” 고 후회했다. 또 현재 생존해 있는 레넌 의 부인 오노 요코(87)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채프먼은 1981년 레넌 살인죄로 20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뉴욕주 버펄로 웬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채프먼은 가석 방 신청이 가능해진 2000년부터 올해까 지 11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신청했지 만, 모두 불허됐다. /연합뉴스

“푸틴, 나발니가 독극물 자발적으로 흡수했을 가능성 언급”

르몽드, 마크롱·푸틴 통화 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마 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알렉세이 나발니가 스스로 독극물을 흡수했을 수 있 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22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몽드는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이 지난 14일 마크롱 대통 령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이 가설을 부인했다고 전했 다. 이날 양국 정상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인 나발니가 독극물 공격을 당했다는 의혹 사건을 두고 나눈 대화는 소구에 경 읽기 와 같았다는 게 르몽드의 평가다.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발니가 중독된 신경안정제 노비죽은 민간단체가 사용할 수 없는 물질 이라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가 노비죽에 중독됐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분석 결과를 러시아에 넘 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 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가 과 거 인터넷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았고, 불법 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를 경멸스러워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노비죽을 발명 한 사람이 현재 라트비아에 살고 있다는 점 을 언급하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 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테슬라 CEO 머스크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반값에 성능은 더 우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22일(현지시간) 오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가 더 강력하고 오래 가지만 가격은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4680’에 대해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배터리 데이 행사 무대에 검은 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자 무대 앞 주차장에 서 테슬라 승용차 모델3를 타고 있던 240 여명의 주주들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행사는 이 회사가 새로 개발한 배터리 기술과 생산 계획 등 을 공개하는 자리로, 세계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내용이 나올지 전세계 자동차 업계와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 행 사의 초기 시청자만 27만여명에 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이 행사 하루 전 머 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2년까 지 다량의 생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